

오찬(吳瓚)의 죽음과 문학적 형상화*

백승호**

- I. 서론
- II. 오찬 상소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 III. 오찬의 죽음에 대한 단호 그룹의 문학적 형상화
- IV. 단호 그룹에 있어서 애제류(哀祭類) 글쓰기의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오찬의 죽음과 그를 애도하는 단호 그룹 문인들의 글을 검토하여 그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오찬은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다가 변방으로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이운영, 이인상, 이명환, 김종수 등 단호 그룹의 문인들은 그를 애도하는 글을 지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문체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 문체의 관습을 벗어나는 글쓰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오찬이 청류지사였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지향했던 고도, 고기, 우정 등의 가치를 담아내었다. 오찬의 죽음은 청류지사의 죽음인 동시에 단호 그룹의 정치적 이상이 좌절된 사건이었다. 그들은 동지의 죽음을 문예미가 높은 애제류 글쓰기 작품으로 애도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8A036)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교수

핵심어: 오찬, 이윤영, 이인상, 이명환, 김종수, 청류(淸流).

1. 서론

숙종 연간 격렬했던 봉당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영조는 탕평 정치를 표방했다. 이 시기는 영조의 엄격한 탕평 의지로 인해 여러 정파가 공존할 수 있었던 시기로 평가되었다.¹⁾ 다만, 이 시대 정국의 실상을 살펴보면, 노론, 소론, 남인이라는 정파 구도가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²⁾ 예를 들어 노론 준론이라고 하는 노론 강경파 가운데에서도 유척기(兪拓基), 이천보(李天輔) 같은 인물처럼 노론의 입장을 주장하되 영조 연간 탕평 정국에 참여하는 인물도 있었고 민우수(閔遇洙), 이재(李穡)처럼 탕평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며 정국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도 있었다.³⁾

영조 시대 정국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는 즉위 후 경종 연간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청했다가 사사된 노론 4대신을 복권시켰다. 1729년에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1740년에는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을 신원해 주었다.⁴⁾ 1741년에는 『어제대훈』을 발표하여 1721년의 대리청정은 경종의 뜻이었고 신하들이 사사로이 주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신임환국 때 피해를 입은 노론 측 신하들을 신원하

1)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40~41면. 영조 연간 탕평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필자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였다. 박광용, 『조선 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유봉학, 『정조대 정치론의 추이』, 『경기사학』 제3집, 경기사학회, 1999; 김정자, 『영조말 정조초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제44집, 조선시대사학회, 2008.

2)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현실』 제53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3) 이재는 신임환국을 사화로 보는 입장이었고, 이인상에게 선배로서 존경받았던 김진상(金鎭商)도 영조가 봉당을 해체하고 조제와 보합을 추구하는 것을 진정한 탕평으로 보지 않았다. 이의현(李宜顯) 역시 명분이 불분명한 탕평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명의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민우수(閔遇洙) 역시 영조의 탕평 정치가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미봉한 것으로 보았다.

4) 김창집과 이이명은 삼급수(三急手)로 경종을 시해하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나중에 신원되었다.

였다.

『어제대훈』이 발표되자 소론은 경종 연간 영조의 대리청정을 방해한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1746년 영조는 조태구, 유봉휘가 1721년 대리청정을 저지한 죄를 물었고 최석항에게는 1722년 목호룡, 김일경의 무욕에 연루되었다는 죄를 물었다.⁵⁾ 노론 강경파는 계속해서 소론 강경파에 대한 공격을 더하여 『어제대훈』에서 죄인으로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소론 대신 조태구(趙泰耆), 유봉휘(柳鳳輝), 최석항(崔錫恒), 조태억(趙泰億), 이광좌(李光佐)의 죄를 물을 것을 요청했다. 1749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자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 시점까지는 노론이 점차 정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신임환국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영조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소론 대신들을 역적으로까지 지목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1755년 나주괘서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을해옥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론 주요 가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소론 세력은 더 이상 본래의 당론을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국은 소론 온건론자가 사안에 따라 노론의 정치적 입장에 소극적이거나 동의하는 형국이 되었고, 소론 출신 관료는 이른바 “전문 관료”의 노선을 택하였다.

을해옥사 이후 임오화변, 갑신처분 등을 거치면서 영조는 치세 후반기에 각 정파의 조제론을 강조하면서 “대탕평”의 논리를 폈다. 이는 각 정파의 입장을 초월하여 영조의 탕평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노소론 가운데 이에 동의하는 이른바 “탕평당” 및 척신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고 정국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청류 세력이 있었다.⁶⁾ 이 글에서 다룰 오찬(吳贊, 1717-1751)도 청류 세력 가운데 노론 남당에 속했던 청류 명사이다.

오찬은 이윤영(李胤永 1714-1759)과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처사형(處士形) 문인 그룹에 속해 있었다. 오찬은 이윤영, 이인상, 송문흠(宋文欽) 등과 매우 친하였고 시대 인식, 정치적 지향, 문에

5) 『영조실록』 영조22년 9월 2일~4일조 기사 참조.

6) 이러한 청류 세력은 영조 후반 탕평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각 정파마다 분기되어 있었다.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가 바로 1772년 청명당(淸明黨) 사건이다.

취향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였다. 그는 비록 문집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자세는 처사형 문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든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김종수(金鍾秀)의 『제이원령문(祭李元靈文)』에 의거하여 이운영, 이인상, 오찬, 송문흠, 신소(申韶)를 단호(丹壺) 그룹이라고 명명하였다.⁷⁾ 이들은 담연(湛燕) 그룹⁸⁾의 선배 세대로서 18세기 중반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⁹⁾

오찬이 죽은 시점은 신유대훈과 을해옥사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의 상소문은 일견 노론 본류의 정치 입장을 견지하고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한 상소문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것이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오찬의 죽음과 이에 대한 단호 그룹의 문학적 형상화를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 이전에 단호 그룹의 노론 정류로서의 지향과 그 의의가 있었고, 오찬을 기억하는 글쓰기를 통해 그 지향을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II. 오찬 상소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1. 오찬의 생애와 교류

오찬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경보(敬父)이다. 사후에 조카 오재순(吳載純)이 이운영, 이인상 등 그의 벗들과 상의하여 청수(淸修) 선생이라는 사시(私諡)를 올렸다.¹⁰⁾ 생부는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의 동생 오

7)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 담연 그룹은 홍대용(洪大容)과 박지원(朴趾源)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문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에서 처음 명명하였다.

9) 이운영이 종유하거나 교류한 노론 명망가 인물들은 대략 90여 명에 달한다.(박경남, 『단릉 이운영 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면) 이운영과 이인상은 18세기 노론 처사형 문인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다섯 사람 외에도 이운영, 이인상, 오찬과 삼막사(三藐寺) 유람을 함께하고, 오찬의 매화음에 합석하였으며 이운영의 매화시에 화답한 이명환(李明煥)과 이인상, 이운영과 단양 유람, 영종도 유람, 수정루 모임 등을 함께 하고 훗날 이들의 문집을 간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젊은 날의 김종수도 넓게는 이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 이인상, 『答吳子文卿書』, 『凌壺集』 권3, 한국문집총간 225, 한국고전번역원, 1999, 508면.

진주(吳晉周)인데, 계부인 오이주(吳履周)의 양자가 되었다. 조부는 오두인(吳斗寅) 증조는 오숙(吳翮)이다. 처부는 심사주(沈師周)이다.

그는 오원(吳瑗 1700-1740)의 이복동생으로 오원보다 17년 연하이다.¹¹⁾ 이재, 김영행(金令行), 최창대(崔昌大), 남택하(南宅夏), 김창열(金昌說), 이숙(李翮)의 처조카이다. 그는 청년 시절 형 오원을 따라 남유용, 이천보 등이 주관한 모임에 배석하였고 오원의 매화 모임에도 형제들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1751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사간원 정언에 제수된 뒤 동년 음력 윤5월 18일에 신임환국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할 것, 시비를 분명히 할 것, 충직을 장려할 것 등의 내용을 상소하였다. 이것은 당시 탕평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소론 강경론자 이종성(李宗城)을 논척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광좌, 조태억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주장하는 계를 올렸다. 영조는 그가 당론(黨論)을 한다고 하여 삼수(三水)로 귀양 보냈다. 그는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다.

오찬의 생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고기(古氣)를 숭상하는 골동 취향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문왕정(文王鼎)을 구하고 싶었으나 실제로 오래된 청동기물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공이 문왕을 위해 만든 문왕정을 본떠서 술을 새로 만들고 다른 골동품과 함께 전시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이윤영, 이인상 등 여러 사람을 불러 매화 감상회를 열었다.¹²⁾

이 모임의 시점은 1749년, 장소는 북한산 아래 계산동(桂山洞) 오찬의 산천재였고, 참석자는 이윤영, 이인상, 김상목, 이명환 등이었다. 이들이 모여서 매화를 감상한 방법이 매우 운치가 있다. 단지 설중매를 보는 것도 이미 고상한 취미인데, 이들은 매화를 감실 안에 넣어 두고 운모 병풍을 친 다음 여기에 비치는 매화를 보았다. 또한 얼음을 얼려 병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촛불을 넣어 두고 그 빛으로 매화를 감상하였다. 매우 기발하면서도 고상한 감상회라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술은 소라 껍질로 만든 술잔에 마셨다. 이날 모임에서 이인상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11) 오원은 해창위 오태주의 양자가 되었다.

12) 이윤영, 이인상, 오찬 그룹의 문왕정과 매화 감상회에 대해서는 이종목, 『한시마중』, 태학사, 2012, 151~152면 참조.

古器稱心製	고기(古器)가 마음과 제도에 맞아
嘉餐賴友來	좋은 음식 장만하여 벗을 불렀네.
氷燈淸耐燭	얼음 등불엔 촛불을 넣어 맑은데
螺甲巧成杯	소라 껍데기로 만든 술잔 예쁘장하네.
醉肚眞成鐵	술 취한 창자는 정말 강철로 만들었나.
浮名極似灰	헛된 명성은 정말 재처럼 허무한 법.
崢嶸星漢夜	은하수의 별 찬란한 이 밤
寥落看寒梅	고요히 찬 매화를 바라보노라.

이인상, <오찬의 산천재에서 새로 주조한 동작을 구경하고, 얼음 등불을 걸고 매화를 구경하였다. 소라 껍질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 김상목도 술병을 들고 왔다.[吳敬父山天齋, 觀新鑄銅爵, 懸氷燈賞梅, 取螺甲飲酒. 金進士伯愚, 亦攜壺榼而來]>, 『凌壺集』 권1(225: 478)¹³⁾

이인상의 시에는 동작을 새로 주조하였다고 하였다. 오찬은 문왕정 말고도 이처럼 다른 여러 가지 기물들을 골동품 대신 주조하여 전시하였던 것 같다. 진짜 골동품이 아니라 고기(古器)를 제도에 맞게 새로 주조한다는 것은 그가 고도(古道)를 추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오찬은 이에 흡족하여 평소 뜻을 함께하는 벗들을 초청한 것이다. 즉 고도를 함께 추구하는 동지들의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함련은 운치 있는 매화 감상법이다. 빙등(氷燈)은 빙심(氷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¹⁴⁾ 나배(螺杯)는 술잔의 미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소라껍질로 장식한 아름다운 술잔으로 술을 마셨던 것 같다. 모두 이 모임이 고아한 마음을 가진 청류의 모임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어이다. 경련에서는 통음(痛飲)하며 속세의 헛된 명성을 우습게 보는 방달한 모습이 호쾌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미련에서 고요하게 매화를 보며 성찰하는 군자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인상의 시처럼 오찬의 골동 취향은 고기(古氣)를 추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 오찬이 주관한 모임은 고아한 군자의 모임이었다.

13) 이인상의 시와 관련 내용은 이종목, 앞의 책, 152~153면 참조. 이 외에 오찬의 계산동 산천재에서 문인들의 교유에 대해서는 강혜선, 『이인상(李麟祥) 그룹의 교유양상과 시서화(詩書畫) 활동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24집, 한국한시학회, 2016, 199~201면 참조.

14) 왕창령, <芙蓉樓送辛漸>, “洛陽親友如相問 一片氷心在玉壺”

2. 1751년 오찬의 상소

오찬은 1751년 음력 윤5월 18일에 상소를 올렸다.¹⁵⁾ 1749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자 오찬은 사도세자에게 부왕을 대신해 신임환국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비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청하였다. 당시 노론 4대신은 복권되었으나 이광좌 등 소론 대신들은 직첩이 환수되는 정도의 죄를 받았을 뿐 역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¹⁶⁾ 오찬의 상소는 크게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상소문의 요지를 3가지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락은 징토(懲討)를 엄정히 하여 윤강(倫綱)을 부지하라는 내용이다. 신임환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단락은 시비(是非)를 분명히 하여 조정(朝廷)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목상의 탕평, 조제 탕평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은 영조의 탕평 정국을 비판한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네 번째 단락은 충직(忠直)을 장려하여 풍속을 권면하라는 내용이다. 임금 이 강제한 언론을 펴는 신하를 박해하는 것을 비판하는 언급이 포함되어 영조의 심기를 거스르는 표현이 있었다. 그가 올린 장문의 상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인용한다.

(전략) 이른바 시비를 분명히 하여 조정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신은 주자가 “옛날 봉당을 싫어해서 그것을 제거하려는 자는 왕왕 남의 나라를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까지 한다”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무릇 봉당이 국가에 화를 입힌 것은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절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로 혹 시비가 불명확하고 호오가 공정하지 않은데, 다만 그 이름만 미워하여 군자 소인의 구별을 분별하지 않고 뒤섞고 합치는 정치에만 힘쓴다면 그 폐단은 필경 군자는 늘 물러나고 소인은 항상 등용되어 난망(亂亡)이 뒤따르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또한 두려워할 만합니다.¹⁷⁾

15)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윤5월 18일 (계미)조

16) 1755년 이후 영조는 신임환국의 책임은 조태구, 유봉휘에게 있다고 하고 이들을 역률에 처하였고 이광좌, 조태억, 최석항의 관직을 추탈하였다.

17) 所謂明是非, 以正朝廷者. 臣聞朱子有言曰: “古之惡朋黨而欲去之者, 往往至於亡人之國.” 夫朋黨之禍人國家, 疇昔亦然, 而其所以去之之術, 自有其道. 苟或是非不明, 好惡不公, 徒惡其名, 而不辨君子小人之分, 務爲混同參合之政, 則其弊必至於君子常退小人常進, 而亂亡隨之, 其亦可畏也哉!

오찬은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임환국의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주장한 것이다. 당시 붕당을 파한다는 영조의 기본 방침은 오찬이 보기에 신임환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시비가 불분명한 파붕당책(破朋黨策)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즉 노론 사대신은 복권하고 소론 오대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시비가 불분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혼동참합”의 정치라고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정세 하에서는 자신들 같은 군자들은 물러나서 처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조정에서 치도(治道)를 두루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분석하는 것이 탕평의 정치가 아닙니까? 생각건대 우리 대조께서 붕당의 화를 통렬히 징험하시어 만회의 계책을 깊이 진념하시고 탕탕평평한 도리로써 보합하고 조제하려고 하시는 뜻이 참으로 정성스러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한 지 수십 년 동안에 한 푼의 효험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백가지 폐단이 층층이 생겨나서 다만 국세가 날로 위험한 지경에 나아감을 보게 되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들어 행하기를 잘못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다만 그 이름만 소유하고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¹⁸⁾

이 단락은 이른바 ‘탕평당’ 세력이 영조의 탕평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비록 그 책임을 신하들에게 돌렸지만, 매우 통렬한 어조로 탕평책이 효험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영조의 탕평책은 각 정파의 온건론자를 중심으로 한 ‘완론 탕평’이라고 지칭하는데, 탕평책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일종의 ‘탕평당’을 형성하였다. 오찬의 비판은 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 인용한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중략) 선악을 불문하고 충성과 아침을 구분하지 않고 군자와 소인을 나누지

18) 今日朝廷, 所以彌綸治道, 賁飾太平者, 非蕩平之政乎? 惟我大朝, 痛徵朋黨之禍, 深軫挽回之策, 欲以蕩蕩平平之道保合而調劑之意其誠矣, 然而行之數十年, 分效未著, 百弊層生, 徒見國勢, 日趨於危亡之域, 其故何也? 良由在下之人, 奉行無狀, 使聖朝, 但有其名而未享其利, 寧不可惜?

않고 모두 수용하여 나란히 등용하여 뒤섞어서 조제하여 이것저것에 대하여 호오가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무당무편하다고 하며 탕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1721년 성상을 무함한 흉적들이 한 번 변하여 무신년 청병한 독봉(毒鋒)이 되었습니다. 저 전에 보지 못했던 흉역들이 그 무리에서 나왔기에 간담이 떨어지고 의기가 막혀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상의 뜻이 매번 화란의 근원이 당론에서 말미암는다고 의심하신다는 것을 남몰래 미루어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에 갑자기 변신할 계책을 세워 탕평의 설을 올렸던 것입니다. 경전의 훈을 회피하여 글로써 간사한 말을 이루니, 탕평 두 글자의 명목을 빌려 은밀히 일신의 사욕을 이루어 뽑히지 않는 기반을 점거하였습니다. 기관을 농락하는 재주로 일세를 희롱하면서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그 손바닥에 달려있고, 알선하고 주선하는 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미쳐 날뛰며 스스로 득의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이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죄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¹⁹⁾

이 단락은 ‘탕평당’이 ‘탕평’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수사로 전락시키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단락이다. 그는 ‘탕평당’의 형성이 신임 환국와 무신란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그 혐의를 벗기 위해 영조의 탕평 정책을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았다. 그의 상소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는 군자와 소인을 분명하게 갈라주어야 한다. 즉 노론은 군자당이고 소론은 소인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둘째, 소론은 1721년 연잉군이었던 영조의 대리청정을 방해한 세력이며, 1728년 무신란의 주도 세력이다. 셋째, 그럼에도 소론은 임금이 당론을 싫어한다는 것을 예단하여 탕평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편승하여 정국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찬은 본래 이러했던 ‘탕평당’이 엄연한 세력이 되어 이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세대를 우려하였다.

19) 非謂其不問善惡，不辨忠佞，不分君子小人，而具收竝用，混融調劑，於彼於此，無好無惡然後，方始無黨無偏，而名之曰蕩平也。嗚呼！辛丑誣聖之凶賊，一轉而爲戊申稱兵之毒鋒，彼輩目見無前凶逆，出於其黨，膽落意沮，自知不容於世，而竊揣聖意，每疑禍亂之原，由於黨論，故於是乎忽作隳身之計，進以蕩平之說，傳會經訓，文致奸言，假二字之名，而陰濟一己之私，以爲盤據不拔之基，而機關籠絡之術，簸弄一世，弛張伸縮，在其掌握，斡旋轉運，無不如意，猖獗跳踉，自以爲得其計，其罔君誤國之罪，固不可勝言。

그리고 더욱 애통한 것은 일변에서 조금이라도 자중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못 본래 명의를 두려운 것이고 저들의 작태가 미워할 만하다는 것을 알아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는데 끝내는 이해득실에 이끌리고 화복에 두려워서 날로 달로 옮겨가서 낮짝이 점점 변화하여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동색으로 이익을 탐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²⁰⁾

이 단락은 소론 온건파와 노론 온건파가 연합하여 탕평당 세력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한 내용이다. 점점 관료 사회가 이익을 탐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반성을 보여주었다.

(중략) 아! 옛적에 당을 만든 자들은 옳고 그름을 다투었는데 지금의 당을 만든 자들은 은총을 다툵니다. 옛적에 당을 만든 자들을 샷됨과 올바름을 다투었는데 지금의 당을 만든 자들은 작록을 다툵니다. 어찌하여 당을 제거한 세상에서 당이 없어진 실재를 보지 못하고 대번에 음봉의 당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까? 성상이 탕평 정치의 근원이 비록 봉당을 미워하여 제거하려는 방법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말류의 폐해는 이처럼 극단적인 데에 이르렀으니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하략)²¹⁾

이 단락은 당파를 없애려는 영조의 탕평책이 오히려 ‘탕평당’이라는 음봉(淫朋)을 만들어냈다는 극단적인 결과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영조가 생각하는 탕평책의 성과를 무시하는 과격한 발언으로 앞 단락에서 “수십 년 동안에 한 푼의 효험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백가지 폐단이 층층이 생겨”났다는 표현처럼 영조의 심기를 거슬렀을 가능성이 많다.

오찬이 시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청한 것은 소론 오대신 가운데 강경파에 속했던 이광좌의 계승자였던 이종성을 겨냥한 것이다. 또 탕평당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익에 붙쫓는 무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노론의 흥계희, 소론의 정우량, 조현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종성,

20) 而尤可痛者，一邊之稍欲自好者，初則頗知本來名義之可畏，彼輩情態之可惡，蓋與之同事，而未乃牽動於利害，怵懼於禍福，日遷月化，頭面漸幻，駸駸然入於其中，泯然爲一色嗜利無恥之徒，

21) 噫! 昔之爲黨者，所爭是非，今之爲黨者，所爭恩寵，昔之爲黨者，所爭邪正，今之爲黨者，所爭爵祿，是何祛黨之世，不見無黨之實，而遽復生一淫朋之黨也，原聖朝蕩平之政，雖出於惡朋黨而欲祛之術，然其末流之害，至於此極，非細故也。

조현명, 홍계희는 탕평 정국의 중요한 한 축이었고, 정우량은 1749년 아들 정치달을 화완옹주의 부마로 들여 왕실의 척신이 된 상태였다. 탕평 정국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을 비판한 이 상소는 그 즉시 정국의 문제적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3. 오찬의 상소에 대한 반응

오찬이 앞 절과 같은 주지로 상소를 올리자 당시 대리청정 중이던 사도세자는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렸다.

글을 보고 다 알아들었다. 나는 다만 성상의 뜻을 마땅히 받을 뿐이다. 또한 하물며 대조가 몇 년 동안 고심한 것(필자주: 탕평)에 있어서라. 참으로 한심하다. 그대는 사임하지 말고 일을 보아라.²²⁾

사도세자는 오찬의 상소에 대해 자신은 영조의 탕평책을 따를 뿐이라고 답한 뒤 한심하다는 간략한 논평한 뒤 그것을 별 문제 삼지 않았다. 탕평을 원칙적으로 강조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자신의 친신이었던 오원의 동생인 오찬이 이러한 상소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였다.²³⁾ 한편 소론 온건파로 상소의 논척 대상이 되었던 조현명은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현중(李顯重)이 제멋대로 분방하게 날뛴 것에 대해서는 신은 다시 여지가 없고, 오찬이 탕평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저버린 것은 모두 신이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단초입니다.²⁴⁾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이현중은 조정의 언로 차단에 대해 상소한 인물이다. 위 부분은 오찬이 탕평책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가

22) 覽書具悉，余則但當遵奉聖意，且況大朝之幾年苦心乎，誠涉寒心，爾其勿辭察職(莊獻世子, 『正言吳瓚請嚴懲討書批』, 『凌虛關漫稿』 권2, 한국문집총간 251, 한국고전번역원, 46면.)

23) 吳瓚，若思其兄之心，則豈忍爲此事乎?(『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4일 기사)

24) 至於李顯重之恣意噴薄踏臣無復餘地，吳瓚之汚辱蕩平打破臣事君頭腦者，皆係臣必退之端(『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16일조 趙顯命의 차자)

탕평책을 모독한 죄를 강조한 것이다. 소론 강경파였던 이종성도 오찬에게 탕평을 모독했다는 식으로 반론을 폈다.

한편 이존중, 이의철(李宜哲) 같은 이는 오찬을 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종성이 이광좌의 문인이므로 재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다가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된 바 있다.²⁵⁾ 오찬이 삼수로 유배 떠나자 남유용, 이인상, 이윤영, 이명환 등이 전송하는 시를 짓거나 그를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²⁶⁾

III. 오찬의 죽음에 대한 단호 그룹의 문학적 형상화

오찬이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단호 그룹의 문인들은 여러 문체의 글을 통해 그의 죽음을 기록하였다. 그들의 글은 각 문체의 장르적 관습에 충실하면서도 오찬의 청류지사로서의 면모, 고인(古人)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보통 애제류의 글은 망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체의 관습이다.²⁷⁾ 그런데 단호 그룹의 애제류 글은 애도와 슬픔 속에 본인들의 의론을 넣거나, 오찬의 행적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비지류와 같은 면모를 보인다거나 오찬의 인물 형상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전의 문체에 근접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찬이 주장했던 탕평책의 폐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두둔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윤영, 이인상, 이명환, 김종수의 글을 통해 그들이 오찬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을 좇고자 한다. 그들은 오찬을 애도하는 글을 통해 그 죽음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고,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글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25) 남공철, 『禮曹參判兼同知經筵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李公神道碑銘』, 『金陵集』 권15, 한국문집총간 272, 281면.

26) 李麟祥, 『與吳敬父』, 『凌壺集』 권3, 앞의 책, 507면; 李胤永, <寄贈敬父三水謫居>, 『丹陵遺稿』 권8, 앞의 책, 274~275면; 李明煥, <送敬父謫三水>, 『海嶽集』 권1, 앞의 책, 249면.

27) 본디 애제류는 시호를 청하기 위해 공적을 칭송한 퇴(誄), 광범위한 대상을 애도하는 조문, 애도의 감정을 표시하는 애사,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한 축문에서 출발한 제문 등이 있다. 제문은 후에 망자에 대한 찬양과 슬픔을 표하는 기능을 겸하였다. 서사증, 『문체명변』 권60, 오성사 영인본, 1984, 153면 참조.

1. 이윤영의 〈祭吳敬父文〉

제문은 애제류 산문의 대표적인 문체이다.²⁸⁾ 본래의 제사는 곡향(告饗)에 그쳤는데, 중간에 망자의 언행을 찬양하고 애통한 뜻을 부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제문은 후한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위진남북조시대에 점차 흥성하였다.²⁹⁾ 한유의 〈제하남장원외(祭河南張員外)〉, 〈제유자후(祭柳子厚)〉 등의 글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보통 친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은 진실한 마음과 슬픔이 글에 잘 드러난다. 이윤영이 오찬을 위해 지은 제문을 분석하며 문체의 관습을 이행한 면과 개별적인 작품으로서의 성취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찬이 죽자 이윤영은 1752년 2월 22일 경 〈제오경보문〉을 짓고, 이와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에 〈초혼사(招魂辭)〉를 지었다. 다음은 〈제오경보문〉의 일부이다.

(전략) 아! 계산동의 밤에 그대가 일찍이 나에게 “사마광이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의 실행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였지. 이 말 한마디를 보면 그대의 평소 행적을 알 수 있다네. 나 이윤영이 비록 불민 하지만 그대의 벗이 되었으니 어찌 나쁜 짓을 하여 속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천하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네.

아! 우리가 단양을 유람할 적에 그대가 또 와서 전별하였는데 말하기를 “삼막사 관해루에서 그대가 말한 뱃속의 원고 만 마디를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지. 아! 요즘 사람들은 포의일 적에는 큰 소리로 말하며 죽음을 초개처럼 보다가도 나라에서 간관의 직을 주면 이해득실을 헤아려 소근소근 돌아보고 꺼리니 그 비루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대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말을 꺼내어 시원하게 뜻을 보였도다. 장차 나 이윤영이 비록 깊은 산속에서 말라 죽을 것을 기약하였지만 그대로 인하여 하고 싶은 바를 했으니 천하의 즐거움 두 번째라. 지금 그대가 나를 버리고 간 뒤 보고 느낄 것이 없다네. 인색함이 날로 싹트고 허물이 날로 쌓여서 마음속에 쌓이고 맺힌 것이 더불어 전할 것

28) 애제류 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최재남, 『한국 애도시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윤조, 『뇌(誄)의 문체적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양상』, 『대동한문학』 제32집, 대동한문학회, 2010; 김종철,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특성』, 『동방한문학』 제48집, 동방한문학회, 2011 참조.

29) 魏武帝의 〈祀故太尉橋玄文〉, 반악, 도연명, 안연지의 제문이 대표적이다.

이 없으니 또한 누가 능히 들어서 믿고 따르겠는가? 이것은 또한 천하의 지극한 슬픔이로다.³⁰⁾

위 인용문에서 이윤영은 낙(樂)과 비(悲)라는 두 개의 개념을 착중하여 논지를 전개했는데, 즐거움이 주요, 슬픔이 종이다. 우선 오찬을 만나서 얻게 된 천하의 즐거움 두 가지를 말하였다. 첫째는 신독(慎獨)을 몸소 실천하는 그와 벗이 되어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이요, 둘째는 오찬이 사간원 정언이 되어 남들이 말하지 못한 탕평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은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찬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오찬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느낀 슬픔을 말하였다. 본인을 분발시킬 친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점점 퇴락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인 슬픔으로 표현하였다.

인용문에는 생략했지만 이 글 다음에는 이윤영과 오찬이 공통적으로 부끄러워하던 것, 미워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배비구로 나열하였다. 『논어』, 『공야장』편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의 구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고기(古氣)를 살렸다. 그와 오찬이 공통적으로 부끄러워 한 것은 헛된 명성을 세우는 것이요, 미워하던 것은 아침으로 구구하게 영달하는 것, 좋아하던 것은 빼어난 문장, 도서, 꽃과 대나무였다. 자신과 오찬 모두 헛된 명성을 좇지 않고 영달에 뜻을 버리고 고아한 취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밝혔다.

벗을 취하는 도리는 뜻을 숭상할 뿐이지 그 호오 같은 것은 반드시 다 같을 필요는 없었도다. 아! 나와 그대가 한번 어찌 만났는가? 소리에 메아리가 호응하듯,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듯 한 마디 말도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었도다. 10일 동안 보지 못하면 마음이 오랜 병을 앓는 것 같았네. 지금 그대를 흠 속에

30) 嗚呼! 桂山之夜, 子嘗謂余曰: “司馬公所爲無不可對人言者, 庶幾能之。” 舉此一言, 可以知子之平生也, 胤永雖不敏, 爲子之友, 其可爲不善以欺之哉! 此天下之樂一也. 嗟我東行, 子又來別曰: “三藐觀海之樓, 子有所語, 腹蘖萬言, 可以借我乎?” 噫! 凡今之人, 布衣大言, 視死如芥, 及國家授以言責之官, 則計利害囁嚅顧忌, 鄙不可言, 乃君出言稠人之中, 灑然見情, 且胤永雖自期於槁死窮山, 因子而爲其所欲爲, 則天下之樂二也. 今子捨我而去, 無所觀感, 鄙吝日萌, 愆咎日積, 胸中蘊結, 無與誦傳, 而又孰能聽信而從之哉! 此亦天下之至悲也. (李胤永, 『祭吳敬父文』, 『단릉유고』 권12, 앞의 책, 351면)

묻는 것을 보고 인간 세상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슬퍼하니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31)

그리고 나서 위 인용문처럼 자신과 오찬 사이의 우정을 말하고 그를 잃은 상실감을 토로하였다. 벗을 취함에 뜻을 숭상하되 반드시 호오를 다 같이 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당시 정파의 당론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탕평을 적용하려던 정세와 겹쳐 읽힌다.

(중략) 만약 그대가 죽지 않았다면 그 진언하는 바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리라. 세상의 우러르고 휘황찬란하게 팔리기를 구하는 무리들이 제거되는 바가 있을 것이요, 또 저 불의한 부귀한 사람들을 보기를 더럽게 보면서 탁류에서 자신을 고결하게 지켜 세상의 모범이 되었으니 임금을 잇고 이익에 붙는 무리들이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세도와 인심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아서 우리들이 구학에서 명을 다하도록 그 여택을 입었을 텐데, 지금은 죽었으니 이 삶이 참으로 괴롭도다. 아! 슬프도다.32)

위 인용문은 오찬의 객사에 대한 슬픔을 점층적으로 서술한 단락 다음 내용인데, 오찬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가정을 서술하였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더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고결하게 자신을 지켜 세상의 모범이 될 터이니 탕평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악용하여 임금을 속이고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살아 있었다면 세도와 인심이 바로잡혔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단락은 오찬이 과거에 급제하자 이윤영이 오찬이 급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처사형 문인은 아니라고 하자 오찬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단락은 죽어서 목석처럼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옛 사람처럼 반응이 없는 오찬에 대해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눈물짓는 내용이다.

31) 取友之道，尚志而已，如其好惡，未必盡同。嗟我與子，一何遇也。如聲而響應，如形而影隨，一言莫不相關，十日不見，心如疚疾，今見埋于土中，獨立人世，撫躬自悲，其何以爲生乎？

32) 使子而不死，則其所進言，不止於此，使世之顧瞻眩鬻之徒，有所振刷，且彼不義之富貴，視之若沈，潔身濁流，爲世矜式，則忘君附利之類，有不敢肆意焉，庶幾世道人心，不至此極，使吾輩畢命丘壑，得蒙其餘澤，今焉已矣。此生良苦，嗚呼悲哉！

이 제문은 물론 제문의 전통적인 기법 중의 하나인 영탄과 감정의 토로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오찬의 인물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도록 쓰였다. 그리하여 제문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짧은 비문이나 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윤영은 오찬과 만나 생겼던 즐거움과 슬픔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한 뒤, 역지로 같아지기를 추구하지 않던 오찬과의 진정한 우정, 혼탁한 세상에서도 고결한 그의 인품을 주된 내용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오찬의 상소가 받아들여지고 그가 살아남았으면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한 대목에서는 오히려 그의 상소문의 핵심과 평소 그의 지향이 요약적으로 잘 드러났다.

2. 이인상의 〈追和吳敬父梅花八篇〉과 〈素華辭〉

이인상은 <추화오경보매화팔편(追和吳敬父梅花八篇)>과 <소화사(素華辭)>에서 오찬을 매화 또는 하얀 꽃과 일치시키면서 꽃의 고결한 이미지와 오찬을 동일시하였다. 1751년 가을에 오찬과 이윤영이 임포의 매화시에 차 운하며 이인상에게 화답을 구하였는데, 이인상은 미처 화답하지 못하였다. 오찬이 죽은 다음 나중에 이인상이 되는대로 지어 세 연을 얻었는데, 이를 1756년에 완성시킨 것이 <추화오경보매화팔편>이다.³³⁾ 완성의 계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꿈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찬은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두 번 직언을 올렸다가 여강(魚江)가에 유배되어 죽었으니 세 구절 시어가 마치 경보의 시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여러 편을 이어 지으려고 하였으나 차마 말을 엮을 수 없었다. 임신년 겨울에 나는 홍역을 앓아 거의 죽을 뻔 하였는데, 11월 8일에 이르러 문득 꿈에서 오찬을 길가에서 만났다. 검은 갓에 넓은 도포가 기쁘게도 지난날과 같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찬에게 일러 산천재 또는 오재순의 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자고 하니 오찬이 승낙하였다. 나는 문득 혼자 생각에 산천재는 이미 심하게 황폐해졌으니 차마 오찬으로 하여금 보게

33) 이인상의 매화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한국한문화회, 2000 참조; 박혜숙, 「이인상의 관매기 연구」,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참조. 이 장의 서술은 선행 연구의 성과와 그 문제의식을 같이 하였다.

할 수 없었기에 마침내 그를 이끌고 한 방으로 향했는데, 또한 오제순의 거처도 아니었다. 방 안에는 매화 화분 한 그루가 있었는데 늙은 등걸이 마치 바위 같았고 약 두 자 정도 크기였다. 또한 오찬이 평소 심은 것은 아니었다. 오찬이 인하여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고 끝내 한 마디 말도 나눌 수 없어 매우 슬펐다. 깨어나서는 실성하고 한번 통곡하였다. 꿈에서 진실로 우연히 만난 것은 마음속에 감촉되는 바가 있어서였다. 병중에 마침내 낙구를 이어 완성하고 여러 시에 대해서도 나중에 화답하였다. 이윤영에게 부쳐 보내어 슬픈 마음을 기록한다.³⁴⁾

1752년 겨울, 이인상은 흥역을 앓고 생사의 기로에 섰던 밤에 꿈에서 오찬을 만났다. 그는 오찬과 함께 생전과 똑같이 매화를 함께 보러 갔는데, 결국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오찬은 사라지고 매화나무 등걸만 남아있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시는 매화를 읊은 시이면서도 오찬과 매화를 동일시하며 그의 고매한 인품을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³⁵⁾

烈士無心妬芳妍	열사는 무심히 예쁜 꽃을 시샘하여
幽人頭白臥丘園	은자처럼 흰머리로 동산에 누웠네.
寒查不作雲雷象	차가운 등걸은 구름과 우레의 모습을 짓지 않았는데
素萼猶開日月昏	흰 꽃은 오히려 해와 달이 어둡도록 환하게 피었네.
無那矯揉存勁骨	곧았던 굽었던 굳센 골기 있는 것 어찌 하겠는가?
縱教枯槁有香魂	비록 앙상히 말랐을지라도 향기로운 넋은 남아 있다네.
也應落地鳴哀玉	땅에 떨어져 응당 슬픈 옥 소리로 울렸겠지만
萬卉摧殘爾獨尊	은갖 꽃 풀 쇠잔할 적에 너만 홀로 존귀했도다.

8수의 매화시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수련에서 매화를 열사(烈士)와 유인(幽人)에 비유하였다. 이는 동시에 오찬이 열사이자 은자의 면모를 지녔던 것과 중첩된다. 운뢰(雲雷)는 주역 둔괘의 “구름과 우레가 둔이니 군자

34) (전략)未幾敬父登第, 再獻直言, 謫死於魚江之濱, 則三句語若爲敬父識者. 余擬續和諸篇而不忍綴語. 壬申冬, 余病疹濱死, 至仲冬月八日, 忽夢遇敬父於街上, 阜冠博袍, 權然如平昔, 余心知其已歿也, 謂敬父曰: “共之山天齋, 或文卿之室叙語.” 敬父諾之. 余忽自念山天齋荒穢已甚, 不忍使敬父見, 遂相將向一室, 亦非文卿之居也. 室中有盆梅一樹, 老查如石, 約二尺許, 亦非敬父平昔所植也, 敬父因忽不見, 竟不能交一語, 悵失惘恍, 覺來失聲一慟, 夢因偶會, 而有感觸中心者, 病間遂續成落句, 追和諸詩, 寄贈胤之, 以識悲心.

35) 박혜숙, 앞의 글, 443~447면 참조.

는 이때를 당하여 천하를 경륜한다(雲雷屯 君子以經綸)”라는 구절을 뜻한다. 봄기운이 돌아 천하 만물을 경륜하기 전인데도 매화가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핀 모습을 형용하였다. ‘구름과 우레의 상을 짓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찬이 세상을 경륜할 재주를 펴기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와 달이 어둡도록 환하게 피었다는 것은 그의 재주가 어둠의 시절을 환하게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련에서 곧기도 하고 굽기도 한 매화 등걸의 모습에서 ‘군센 골기’를 읽어낸 것은 오찬이 출처(出處)에 상관 없이 깨끗한 지조가 있었던 모습과 겹쳐진다. 수척한 가지에서 향기로운 꽃을 틔우는 매화의 모습은 가난해서 몸은 마를지언정 지조 있는 영혼을 지닌 오찬의 모습과 일치한다. 미련은 매화가 떨어지는 모습을 오찬의 죽음과 연관시키면서 추운 겨울에 다른 꽃들에 앞서 홀로 핀 매화의 모습에서 영조 연간 탕평 정국에 감히 함부로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직언을 상소한 오찬을 매화의 화신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시의 장점은 매 구절이 적실하게 매화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오찬의 성품,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 있다. 결국 오찬은 온갖 꽃이 진 겨울에 홀로 고귀하게 피는 매화처럼 홀로 고고한 삶을 살다가 고귀한 삶을 마감했다. 이처럼 군센 골기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오찬은 세상에서 용납 받지 못하였다. 다음은 8수의 매화시 가운데 세 번째 시이다.

夢決魚江手剪荊	어강에서 꿈속에 전별할 적에 손으로 가시나무 꺾었는데
朋來梅發雪霜并	벗이 오자 매화가 피며 서리, 눈과 나란했네.
天心養得茲花大	하늘은 이 꽃을 크게도 피우셨는데
海內難容一士清	세상은 한 맑은 선비를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蕙珮荷衣同皎服	혜초 노리개와 연일 옷을 화려하게 함께 입었고
氷根棘籜迸幽情	얼음 같은 뿌리 무쇠 같은 가지에 그윽한 정 솟아나네.
無言也有銷魂處	말은 없지만 응당 슬픔은 있으니
淨水絃長落素英	정수금 긴 곡조에 흰 꽃이 지네.

수련은 꿈속에서 매화 앞에서 오찬과 만났던 그 모습을 읊었다. 미련은 자연과 인간의 차이에서 오는 격질감을 읊었다. ‘하늘은 추운 겨울에도 매화를 크게 피워냈는데, 이 세상은 청사(淸士)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함련

에서 청류지사 오찬의 죽음을 애도하는 절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경련에서는 매화의 향기와 은자 같은 모습, 거친 등걸에 정이 어리었다고 하였다. 6구에서 ‘정(情)’ 자를 써서 미련에서 무정물인 매화조차도 오찬의 죽음에 슬픔을 느껴 꽃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끌어낸 솜씨가 빼어나다. 6구의 ‘정’이 미련을 이끌어 강엄(江淹)의 <별부(別賦)> ‘黯然銷魂者 唯別而已矣’ 구결과 지음(知音)의 고사를 점화하여 무생물인 매화 꽃잎이 이인상의 이러한 슬픔에 공감하여 정수금에 꽃잎이 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매화는 오찬의 영혼이요, 매화 꽃잎이 정수금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인상의 슬픈 마음을 지음인 오찬이 알아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수금은 오찬의 거문고인데 거문고 몸통에 줄을 매는 표시를 위한 줄을 굵지 않아 고대의 제도를 재현한 거문고이다. 8편의 시 말미에 적힌 발문 격의 글을 읽어보면 이인상은 오찬의 정수금에 명문을 지어 그것을 새겨 놓게 한 바 있다. 네 번째 매화시는 오찬을 잃은 상실감을 잘 표현하였다.

良友雖亡心猶在	좋은 벗 비록 죽었지만 마음은 남았으니
此生那忍不種梅	나 살아서 어찌 차마 매화를 심지 않을 수 있으랴.
萬木空山悲日短	온 나무가 텅 빈 산에 해가 짧은 것 슬프고
孤芳幽戶占春廻	외로운 향기 그윽한 방에 봄이 돌아오기를 점치네.
月和桂香蕤蕤瀉	달빛이 계수나무 향기에 섞여 무성하게 쏟아지고
風敲竹影隱約來	바람이 대나무 그림자를 두드리며 어른어른 불어오네.
儘教鍊石腸堪斷	철석같은 마음이 다 끊어지게 하려는가?
脉脉花飛莫點杯	계속에서 날아오는 꽃이여 술잔에 점점이 떨어지지 말거라.

오찬이라는 좋은 벗을 떠나보낸 이인상에게 매화는 바로 오찬과 동일시 되는 사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찬이 죽었어도 그 마음을 잊지 못하여 수련에서 말한 것처럼 매화를 심을 수밖에 없었다. 함련의 ‘텅 빈 산’은 벗의 부재에서 오는 그의 암담한 현실 인식을 나타낸 시어이고, 그윽한 향기 맡으며 봄이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우정을 나누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동시에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절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구절로 읽힌다. 경련 무성한 달빛, 어른어른 불어오는 바람은 혹 오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아야 미련에 점점이 떨어지는 매화 꽃잎에 벗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 아픔을 간신히 참아내는 시인의 모습이 잘 호응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시는 오찬의 죽음과 시차를 두고 오찬의 원시에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오찬에 대한 이인상의 애도를 담은 만시라고 할 수 있다. 서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에서는 매화를 적실하게 형용하면서도 그 시어가 정확히 오찬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시에서는 꿈에서 만난 오찬과 재회한 작시 배경을 읊었다. 청류지사 오찬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과 그를 잃은 슬픔을 구천에 있는 오찬이 알아 준 것 같은 상상을 정수금과 매화를 소재로 구현하였다.

1751년에 완성한 이인상의 『소화사(素華辭)』³⁶⁾라는 작품은 요절하여 제명에 죽지 못한 인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사(哀辭)라는 문체의 글인데, 보통의 애사보다 편폭이 확장된 장편으로서 문예성이 뛰어나다. 앞의 매화시처럼 꿈을 형식적인 장치로 사용하여 글을 구성하였다.

오찬이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유배 갔을 때 나는 음죽(陰竹)에 있었고 이윤영은 단양에 있어서 송별하지 못하였다. 오찬이 편지로 유배 중 생활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매우 슬프고 괴로웠다. 내게 두보의 <전출새>, <후출새> 시를 써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두시를 써서 보내기 전에 이윤영의 이별시를 들었는데, 시어가 문득 슬프고 괴로운 것이 마치 사별하는 것 같았기에 마음이 동요되어 다시 일어날 수 없었고 또한 시를 써서 보내지도 못하였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오찬을 만나 서로 붙잡고 통곡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오찬이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여 초혼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슬픔 때문에 말을 엮지 못하였다.³⁷⁾

위 인용문은 애사 서문 가운데 도입 단락이다. 유배간 오찬이 두시를 써 주기를 청하였는데, 미처 그것을 보내기도 전에 유배지에서 죽었다. 오찬이

36) 이인상의 『소화사』 분석에 대해서는 김민영, 『능호관 이인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43~48면에서 그 주요 내용을 참조하였다.

37) 吳子敬父言事北遷，余在雪城，李胤之在丹陽，不能送別，敬父書報諒中事甚淒苦，索余書杜子前後出塞詩，而未及書贈，聞胤之賦別詩，而辭忽淒苦若死別者，心動不能復作，亦未及書贈矣。余忽夢遇敬父，相握而慟，未幾聞敬父歿于北塞，余憂羈魂之沉滯，欲賦招魂，而悲不能綴辭矣。

삼수에 유배간 도중 꿈에서 만났다고 하였는데, 도입부는 사실 속에 꿈을 삽입하여 다음 단락에서 시작하는 본격적인 꿈 이야기를 유도하였다.

입춘인 입자일에, 나는 꿈에서 이윤영과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넓직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윤영은 오동 꽃을 내게 먹였다.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은 것이 완전히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여 정신이 그 때문에 송연하였다. 문득 오찬이 곁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야흐로 집을 짓고 있었다. 동쪽에는 높은 집이 있었고, 서쪽에는 내실이 있었으며, 꽃향기가 주위를 감싸고 꽃과 나무가 어른거렸으니 완전히 오찬의 산천재 옥경루 같았다.

오찬이 말하기를 “동서 양실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만들어 깊고 으스스한 가운데 어른거리게 한다면 집이 빛이 날 것이라네”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자네는 형제가 없어 늘 외롭게 살았는데 자네가 집이 생기면 처자의 친척과 친구들로 하여금 동서로 서로 바라보게 하며 사이가 멀어지게 하지 말게나”라고 하였다. 이윤영이 나의 말에 찬성하였는데 오찬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으며 끝내 또한 말이 없었다.³⁸⁾

두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꿈에서 오찬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 다. 여기서는 꿈 안에 흰 꽃(素華)을 먹는 장면을 또 삽입하여 흰 꽃을 먹는 순간 오찬이 이인상 곁에 나타났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흰 꽃과 오찬이 동일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게다가 꿈 안에서 찾아간 장소는 오찬의 산천재 옥경루와 비슷했다. 결국 오찬은 희고 향기로운 오동꽃과 그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평소 그의 고아한 인품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담장을 쌓는다는 것은 그 뜻이 상서롭지 못하였다. 친구간의 말에 유명에 구별이 없으려면 당실 사이를 차단할 없어야 한다. 동서를 흰히 통하게 하여 해와 달처럼 서로 바라보게 한다면 곧 영혼이 왕래하는데 두루 돌아다니면서 막힘이 없는 형상이다. 하물며 양기가 떨쳐지는 것이 입춘에 성대 하거늘 오찬의 영혼이 장차 나의 꿈에 의탁하여 남쪽으로 돌아가 타향에 막혀있

38) 立春之日壬子，余夢與胤之至一室，虛廓可念，胤之餐余以梧桐之華，素華朱心，宛如木蓮，芬薰滿口，神爲之竦，忽見敬父在側，而方治堂室，東有高館，西有曲房，華鬘周遶，花木交映，宛似敬父山天之齋玉磬之樓。敬父曰：“就兩室之間，從隅爲垣，深邃隱映，則堂室有輝。”余曰：“子無兄弟，恒居孤獨，子有館宇，以處子之親戚賓朋，東西相望，無使隔遠。”胤之贊余之言，敬父怡然含笑而竟亦無言。

지 않으려고 한 것이란 말인가?³⁹⁾

이 단락은 꿈에서 깬 다음에 이인상이 꿈의 의미를 반추해 본 내용이다. 이인상은 집안에 담장을 세우겠다고 한 오찬의 주장을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막는 장벽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오찬이 꿈에 나타난 시점이 양기가 성한 입춘이었기 때문에 음기인 망자의 혼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해 오찬의 꿈을 통해 서울 집으로 돌아오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꿈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음속으로 내 꿈의 길함을 믿고 마침내 초혼사를 짓는데, 흰 꽃에 홍을 의탁하여 장차 이운영의 시와 함께 반춘(返漚)할 때 읊고자 하였는데, 글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운영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기를, “2월 초에 오찬이 나를 찾아와 자신이 꿈 꾸에 대해서 묻기를 ‘조천관에 가서 관에 실려 돌아오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깬 후 알아보니 조천관은 제주에 있다’고 하기에 나는 ‘혹시 그대가 벼슬에 나아가 상소하고자 하니 꿈에 그러한 일이 보인게 아니겠나’라고 말하였소. 그러자 오찬은 슬픈 얼굴을 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를 입었구려. 남과 북으로 비록 부합함이 다르나 관에 실려 돌아온 것은 천명인가 보구려.”라고 하였다.⁴⁰⁾

이 단락은 이운영을 통해 오찬의 꿈 이야기가 들어오는 내용이다. 오찬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언급을 하였고, 이운영은 ‘조천(朝天)’의 의미를 천제, 즉 임금을 보러 가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가 조정에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 꿈의 이치는 아득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짐작건대 오찬이 깃던 집은 필경 자신의 옛 집일 것이고 ‘조천’ 운운한 것은 관에 실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

39) 覺而思之, 築之以垣, 其意不祥. 朋友之言, 罔問幽明, 使堂室之間, 無有遮斷, 洞澈東西, 日月相望, 則若有魂氣來復, 周流無滯之象. 況陽氣奮發, 盛於立春, 敬父之魂, 將托余夢而南返, 不滯于異鄉耶!

40) 心信余夢之吉, 遂作招魂之辭, 托興於素華, 將與胤之之詩, 迎誦于返漚, 辭未及就, 胤之有書曰: “二月初, 敬父來訊其夢曰: ‘再到朝天館, 載棺而歸, 覺而訊之, 館在濟州.’ 胤之曰: ‘子或進身言事, 乃至夢境耶?’ 敬父愀然不樂, 未幾禍作, 雖南北異符, 而載棺而歸, 天耶!”

서 도성을 지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또 <전출새>, <후출새>시를 읽어보니 그 말이 처량하고 괴로워 오찬의 출처 시말과 흡사하였다. 이에 그 글을 엮어 그 뜻을 잇는다. 아! 오찬의 혼이 그래도 차마 돌아오지 않으려가? 애사는 다음과 같다.⁴¹⁾

이 단락은 이인상의 꿈과 자신의 꿈을 함께 맞춰 본 다음 그 의미를 종합해서 풀이하였다. 살아있는 이인상과 죽은 오찬이 유명 간에 꿈을 통해서 서로간의 접점을 발견하고 그간의 시말을 정리하였다. 꿈을 매개로 한 망자와의 교감과 그 의미 분석이 잘 조화된 글이다. 이 글은 오찬의 고아한 인품을 흰 꽃과 동일시하는 내용과 꿈을 통해 망자와 교감하며 망자의 의도를 해석한다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잘 풀어낸 문예미가 높은 작품이라고 하겠다.

죽은 친구를 꽃에 비유하는 것은 오찬의 경우뿐만 아니라 김종수가 쓴 이양천에 대한 애사에서도 확인된다. 김종수는 『이숙공보애사(李叔功父哀辭)』에서 이양천을 채란과 연결시키면서 굴원의 고사에 비꼈다. 이처럼 망우(亡友)를 꽃에 견주는 것은 자신들의 우정이 고상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표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이명환의 〈廣招〉⁴²⁾

이명환은 오찬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그리워하는 작품을 남겼는데⁴³⁾, 심지어 오찬이 죽은 뒤 13년 뒤에도 그를 추억하는 작품을 쓴 적이 있다.⁴⁴⁾ 그는 오찬이 죽은 직후 『초사(楚辭)』 <대초(大招)>를 재현하여 오

41) 嗚呼! 夢寐之理, 杳茫難譜, 而余意敬父所治之館, 必是故居朝天之義, 謂其載棺自北而南過于國門耶! 余又取讀前後出塞, 其辭淒苦, 酷似敬父出處始末, 遂綴其辭以繼之. 嗚呼! 敬父之魂, 尙忍不返, 辭曰:

42) 이명환, <廣招>, 『海嶽集』 권1, 앞의 책, 230면.

43) 이명환, <五月, 偕再從士謙 彦光 登鷗亭, 墻壁頽圯, 樓臺朽破, 頓無昔日光景, 仍憶與敬父同遊舊事, 不覺涕泗, 復和流字識感>, 『海嶽集』 권1, 위의 책, 249면. 1752년작임.

44) 이명환, <罷官閑居, 靜念奔忙時自多尤悔, 擁書北牕, 仍成午眠, 見吳敬父相對笑晤, 宛若平昔, 歷指余參尋數人, 微示警意, 仍說近在四郡山水間, 又將乘漲上忠原云, 覺來音容丁寧, 不覺涕沾于枕上, 敬父之逝, 今已十三載, 其間夢遇甚稀, 或有彷彿時, 而未有若今日之歷, 且有戒語, 無異前日, 益感神心交, 遂愴然成三絕>, 『海嶽集』 권2, 위의 책, 259면. 1764년작임.

찬을 애도하는 <광초(廣招)>를 지었다. 이 작품은 문학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古)를 추구하여 오찬의 고기(古氣)와 어울리게 하였다.

【<광초>는 오씨를 애석해한 것이다.】

【주석은 다음과 같다. 오씨는 이름이 찬이다. 자는 경보이고 다른 자는 청수로 고인이다. 어찌서 씨라 하였는가? 『법언』에서 안연을 안씨의 아들이라 하고 민자건을 민씨의 손자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을 피한 것이다. 무엇을 일러 그 이름을 피하였다고 하는가? 그 사람을 존송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그 사람을 존송한다고 하는가? 그 사람의 고결한 행실이 내면에 있고 단아한 행적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간언으로 물리쳐져 귀양 가서 죽었을 때 당시 나이가 35세였다. 그의 선비 칭호는 대아이고 관리 칭호는 정언이다. 관리가 되었기에 진실로 선비 칭호로 일컬을 수 없고 직첩이 환수되었기에 또한 관리 칭호로 일컬을 수 없으니 선비인가 관리인가. 모두 일컬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존송하기 때문에 또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고 이미 이름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일러 애석해 한다는 것인가? 아끼고 상심한다는 것이다. 그 행실이 맑고 높았던 것을 아끼고 앞으로 적막할 것을 상심한다는 것이다.】⁴⁵⁾

이명환의 <광초>는 총 2200여자에 해당하는 대작이고, 각 구절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석이 달려 있다. 마치 당대에 초사를 재현해 놓은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평소에 단호 그룹이 추구한 고기(古氣)의 문학적 재현이라고 하겠다. 실제 작품에서도 초사 풍을 살리려고 애쓴 형식적 특징이 보인다.

영혼이 처음 그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으니
 신이한 빛과 특별한 아름다움을 품었네.
 이름은 보배롭고 고결하다는 뜻이요
 청수라고 자를 하였네.
 세상이 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시험해 보지 않았구나.

45) 廣招, 惜吳氏也。 / 註曰, 吳氏名贊, 字敬父, 一字清修, 故人也, 何謂氏, 法言曰: 顏氏之子, 閔氏之孫, 辟其名也, 何謂辟其名, 尊其人也, 何謂尊其人, 其人潔行在內, 雅行著外, 以諫見疏, 謫而沒, 時年三十五, 其爲士稱大雅, 爲官稱正言, 爲官固不可以士稱稱, 收官亦不可以官稱稱, 士乎官乎, 俱不可以稱, 既尊其人, 則又不可以名, 既不可乎其名, 其惟氏乎, 何謂惜, 愛也傷也, 愛其行之清高, 傷來者之寂寥也。

분분히 곤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네.

靈初襲其姣服兮 葆精色而淑郵 名之以珍潔兮 字之以清修

世既弗課此純美兮 紛遭蹇而離憂. (중략)

<광초>의 첫 시작 단락이다. 첫 2구는 오찬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본래의 아름다운 자질을 읊었고, 다음 2구는 오찬의 이름과 자의 뜻을 풀이하였다. 마지막 2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질을 지녔던 오찬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곤약을 당했음을 읊었다.

형식적으로는 ‘혜(兮)’라는 남방형 감탄어미를 쓴 것은 물론이고, ‘장(藏)’자 대신 ‘보(葆)’자를 쓴 것이나 숙우(淑尤)라고 할 것을 『초사』 <원유(遠游)>에 나오는 숙우(淑郵)라는 고체로 쓴 것에서 이명환이 초사의 느낌을 살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중략)

혼이여 돌아오라.

즐거움이 끝이 없으니.

산천재 방안의 완상품은

지난날처럼 즐길 것이 많다네.

문왕정을 본떠 주조한 술

고대 법식에 맞게 만든 술잔

구리를 새겨 만든 고(觚)는

길이가 한 자나 된다네.

정수금(淨水琴)에는 칠기로 만든 거위발이요

금속 칠은 말랐다네.

높은 누각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데

옥경(玉磬)이 놓여 있다네.

남포석 벼루에 화려한 벼루 덮개

연문(硯文)에 물결이 이네.

수정으로 만든 붓걸이, 침향(沈香)으로 만든 산에

붓이 죽 걸려 있구나.

魂乎歸徠 樂無射忌 室中之玩 多娛昔忌

象銛文鼎 爵臻格忌 鏤銅成觚 長盈尺忌

淨水貝軫 金漆乾忌 高樓特起 玉磬安忌
 藍石華覆 水月波忌 晶架沉山 聿絀羅忌

이 단락은 작품의 후반부에 이명환이 오찬과 자신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오찬의 영혼에게 생전의 집에 이러한 완상품이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장면이다. ‘기(忌)’자는 『초사』, <대초>에서 쓰인 어조사 “지(只)”와 같은 용법이다. 여기서는 문왕정 모조품, 고대 법식대로 만든 술잔, 한 자 크기의 고(觚), 정수금(淨水琴), 옥경(玉磬), 남포석 베틀과 베틀 케이스, 수정으로 만든 붓걸이, 침향으로 만든 산 등 오찬이 갖추어 놓았던 골동품이 하나하나 가장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명환이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들 골동품이 하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기물이 아니라, 옛날 제도, 옛날 법식대로 만든 고기(古氣)를 구현한 기물이라는 점이다. 단호 그룹이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고(古)를 추구하는 것이 기물의 차원에까지 확장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들이 만든 문왕정, 고, 정수금 등은 하은주 삼대의 법식대로 기물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골동품은 단순한 완호품이 아니라 고기의 재현이라는 고도의 상징성을 띠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초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명환이 오찬을 위해 쓴 초혼사 <광초>는 초사의 문체를 재현하려는 “고도”의 형식적 추구이자 오찬과 단호 그룹의 우정의 실상을 시문으로 그려내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고도의 실체를 부각시켜 오찬이 그러한 모임을 주관하고 그 모임의 중요한 일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4. 김종수의 <吳敬父哀辭>⁴⁶⁾

김종수는 단호 그룹에 있어서 후진에 속한다. 그가 단호 그룹과 교류한 시기가 20대 청년기였기 때문에 그의 삶 후반부에 보여준 정치 행보가 반드시 단호 그룹의 지향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운영과 이인

46) 애사의 문체적 특징 및 단호 그룹 애사에 대해서는 백승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참조. 이 논문에서는 오찬의 죽음을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사에 대해 개괄한 바 있다.

상은 각기 14년, 18년 연하의 김종수를 벗으로서 인정하여 단양 유람, 영종도 유람, 수정루 모임 등을 함께 하였다.⁴⁷⁾ 앞 절에서 살펴본 이인상의 매화시도 이인상이 매화시축을 김종수에게 써서 보여준 바 있다.⁴⁸⁾ 훗날 김종수는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두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따라서 김종수를 넓은 의미에서 단호 그룹의 교유 인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종수가 쓴 오찬에 대한 애사는 생전에 고인과 마음을 나눈 사귀를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략) 오찬은 이년 봄에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여름에는 간관에 배수되었는데, 가을에 삼수에 유배되었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한 해가 끝나지도 않았으니, 슬프도다. 예전에 오찬에게는 완산 이인상, 한산 이윤영, 청풍 김상목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나도 모두들 함께 잘 지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오찬을 알았던 것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알았으니, 대개 이른바 충직하고 신실하며 선을 기꺼이 행하고 의를 좋아하는 자였다. 나는 김상목의 집에서 그 만났는데 머리는 검었고 눈에서는 빛이 났으며 마음속에서 말이 나왔다. 그 얼굴을 보고 나니 더욱더 그의 마음을 믿게 되었다. 이에 시를 지어 마음을 털어놓았다. (중략)

이윽고 그가 사간원에 들어갔는데, 글을 올려 시의에 강상이 무너지고 풍화 어그러졌다는 것을 논하였다. 또 며칠이 지나 대궐에 나아가서 계를 올려 임술년 역옥의 피수들을 토벌하고 삭직할 것을 청하였다. 또 며칠 뒤에 대책을 올려 신법(필자주: 균역법)의 득실에 대해 말하고 내수사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나는 그의 말이 여기서 그칠 뿐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죄를 얻어 그 때문에 죽었구나. 아! 내가 세도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세상의 학문하는 사대부들 가운데 그 얼굴을 보고 그 풍모를 접한 자들이 또한 많지만 그와 같은 사람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아! 이것이 그가 죽은 까닭이로다.(하략)⁴⁹⁾

47) 단양 유람은 1751년에 이루어졌는데, 김종수는 당시 24세의 젊은 나이였다. 이 모임에서 이윤영은 김종수에게 군자의 상징인 연꽃 그림을 그려주었고, 이인상과 임매(任邁)가 이 그림에 찬을 써주었다. 이인상은 김종수에게 『논어』 學而章과 張載의 “매미처럼 인욕의 사사로움을 벗어버리고 봄처럼 의리의 묘함을 녹였네[蟬蛻人欲之私 春融義理之妙]”라는 구절을 篆書로 써 주었다. 동당의 선배들이 그에게 학문과 삶의 지침을 글로 선물하였다.

48) 이인상, 『능호집』 상, 박희병 역, 돌베개, 2016, 434면.

49) “(전략) 敬父是年春及第壯元, 夏拜諫官, 秋徙于水, 至是歲猶未終矣, 悲夫! 初敬夫有友曰完山李元靈, 韓山李胤之, 淸風金伯愚, 此三人者, 余皆與之善焉, 而又或先於識敬父而識也, 故余

애사는 본디 요절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다. 글의 정조는 애통함과 상심을 주조로 하고 단어는 애석함을 지극히 표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실된 슬픔을 표하여 눈물을 자아내는 것을 문체의 관습으로 여긴다. 그런데 김종수의 애사는 슬픔의 표현보다는 그의 행적과 평소 지향에 더 비중을 두었다.

우선 오찬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은 단 한 줄의 내용으로 요약했다. 장원급제자가 1년도 안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춘하추동 계절의 변화와 함께 무미건조하게 사건의 경황을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안에 지극한 슬픔을 숨겨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슬프다”라는 짧은 영탄구에 그 슬픔을 집약하였다.

대신 김종수는 애사의 병서에서 오찬의 인물됨과 오찬이 올린 상소의 정치적 의미, 핵심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찬이라는 인물에 대해 김종수는 그가 단호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그와 마음을 털어놓은 지기적 관계였음을 부각시켰다.

김종수는 김상목의 집에서 오찬을 처음 만났다. 김종수는 오찬 이전에 단호 그룹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알았고, 그를 보고 나니 그의 마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른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사귄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을 기술한 뒤 그가 선을 기꺼이 행하고 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못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고기(古氣)와 우도를 보다 더 강조했던 다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도의 글과 달리 김종수는 오찬이 사간원 정언으로서 올린 상소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오찬이 신임 의리의 분명한 표명과 관역법과 같은 정책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가 오찬에게 기대했던 바는 그가 단호 그룹 출신으로 정치를 하면서

不識敬夫面，而識敬父之心也，蓋所謂忠信正直，樂善而好義者，余於伯愚宅，遇敬父，黔而目光，語言中出，見其面，愈益信其心也，於是爲賦詩以道意，(중략)已而敬父入臺，則上書論時議壞倫紀敗風化，又數日詣闕，啓討壬戌逆魁去職，又數日對策，言新法得失，請破內帑，余知敬父之言不止此而已也，而敬父已獲罪以死矣，嗚呼，余之所以有望於世道者，其果何如也，余於世之學士大夫，望其顏色而接其風旨，亦多矣，如敬父者，豈可復得哉，嗚呼，此其所以死也，(하략)”(金鍾秀, 『吳敬父哀辭』, 『夢梧集』 권5, 한국문집총간 245, 557면)

이른바 ‘세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애사의 병서에서 슬픈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집약한 다음 오찬과 자신의 지기적 관계와 오찬의 상소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였다. 그리고 애사 본문에서 문체적 관습을 지켜가면서 못다한 슬픔을 표현하였다.

IV. 단호 그룹에 있어서 애제류(哀祭類) 글쓰기의 의미

단호 그룹은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된 18세기에 들어서도 대외적으로는 대명의리를, 대내적으로는 노론의 신임의리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이른바 “산림처사(山林處士)” 집단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당색으로는 노론에 속했지만 영조 후반기 권력을 장악했던 척신 세력 및 노론 탕평당과 자신들을 차별화하였다. 그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주장했고, 영조의 탕평책을 시비 분별이 불분명한 정치적인 보합으로 보아 비판했다.⁵⁰⁾

그런데 영조는 자신의 탕평에 대한 비판을 준엄하게 처벌하였다. 이는 오찬의 상소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단호 그룹 문인은 영조 연간 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않았고 정계에 나가더라도 오찬처럼 강경한 의론을 펴다가 좌절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오찬의 죽음은 단호 그룹의 정치적 지향의 좌절이었다. 그들은 동지의 죽음을 문예미가 높은 애제류 글쓰기 작품으로 애도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들은 애제류 글쓰기를 통해 필화를 피해가면서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울러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담아내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그들의 애제문은 문학적 수준이 매우 뛰어나고 애도의 슬픔이 절실하면서도 그들의 지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창작한 오찬의 죽음에 대한 글에는 공

50) 김수진, 앞의 논문, 74면. 최선혜는 “청류처사형 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선혜, 「18세기 청류처사형 문인의 형성과 단릉 이윤영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통된 점이 있다. 그것은 오찬이 “고도”, “고기”를 추구하는 청류지사였다는 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오찬은 단호 그룹 가운데 고통 취향이 더 두드러진 문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취향은 그들의 고도 지향과 관련된 도덕적, 정치적 차원의 문화 행위였다. 그들이 “고”를 추구하는 것은 고대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신적 지향이 골동품 완호로 드러났던 것이다. 오찬이 고대의 청동기인 문왕정을 구하지 못하자 이를 새로 만들고 이윤영, 이인상 등 동지를 불러 감상회를 열었던 것은 청동기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고도”의 추구라는 지향이 중요했던 것이다.⁵¹⁾

이처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장소에서 그들은 또 시사(時事)와 벗들의 출처(出處)에 대해 논하였으며, 벗들의 성격과 의견의 같고 다름을 논하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벗들의 이야기가 산수 품평에서 시작하여 붕우의 출사와 은거의 도리에까지 미친 것은 한말(漢末)의 청의(淸議)나 위진(魏晉)의 청담과 아주 흡사하다. 바로 본인들이 위진풍류(魏晉風流)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짜 골동품을 구하는 대신 새로 청동기를 만드는 장면은 이들이 고도(古道)의 담자라는 인상을 주는 상징 조작의 일종이라고 할 만하다.⁵²⁾

단호 그룹의 애제류 글쓰기에 나타난 오찬의 일생은 은거, 고아한 취향, 청담, 청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오찬 개인의 차원에서 삶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호 그룹이라는 노론 청류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 하나하나가 당대 정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었다.

51) 이윤영, 이인상, 오찬 그룹의 문왕정과 매화 감상회에 대해서는 이종목, 앞의 책, 151~152면 참조.

52) 고위 관료이면서도 고상하고 우아한 삶을 사는 것은 백거이, 소동파 등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또 명말청초의 산인 문화에서도 지근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경화세족들이 골동서화를 갖추고 고상한 취미를 향유했던 것은 영조 연간 단호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조 연간 영향력이 컸던 김종수에 의해 더 확장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19세기 경화세족의 서화골동 취향에 대해서는 이종목,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漢文學報』 제19집, 우리한문화회, 2008; 이종목 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정원표, 『紫霞 申緯의 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동파수용 양상』, 『중국문학』 제62집, 한국중국어학회, 2010, 205~206면 참조.

이윤영의 제문에서는 오찬의 고결한 인품, 삶의 지향, 우정, 상소문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제문이라는 문체의 관습에서 약간 벗어나 짧은 전이나 비문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인상의 매화시는 매화의 본질을 형용한 빼어난 시이면서 오찬의 삶을 그것에 중첩시킨 뛰어난 작품이다. <소화사>는 망우를 흰 꽃에 비유하면서 그의 고아한 인품을 부각하였다. 이명환의 <광초>는 초사라는 고대의 문체를 재현하면서 문체 면에서 고기를 추구하는 그들의 지향을 보여주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오찬이 고대의 이상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음을 잘 드러내었다. 김종수의 애사는 오찬의 죽음이 갖는 의미의 핵심을 요약했고 무미건조한 서술 속에 슬픔의 감정을 집약시켜 읽는 이로 하여금 오찬의 죽음에 대한 공감을 자아냈다.

오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호 그룹의 글쓰기가 공통적으로 거둔 성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도를 추구하던 청류지사 오찬이 현실 정치의 모순을 과감하게 지적하다가 희생되었다. 단호 그룹은 이 사건을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통해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감과 연민을 얻어 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찬이 주장했던 탕평책의 폐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지지하였다. 당대의 정치적 환경에서 그들의 이러한 투쟁은 소외받는 외로운 싸움이었겠지만 단호 그룹 문인들은 문학과 삶의 자세를 통해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견지했던 것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오찬의 죽음과 그를 애도하는 단호 그룹 문인들의 글을 검토해 보았다. 오찬이 죽은 시점은 신유대훈과 을해옥사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단호 그룹은 노론 청류의 처사적 삶을 지향하는 문인 집단이었다. 오찬은 고기와 이상적 정치를 추구하며 노론 본류의 정치적 입장을 굳건하게 지킨 인물이다. 그는 탕평책의 폐해가 정치적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봉당의 폐해를 없애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영조의 탕평책을 준엄하게 비판한 결과 삼수에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죽었

다.

오찬과 정치적, 학문적 이상을 같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단호 그룹 문인들은 그를 기억하는 글을 통해 그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글들은 개별 작품으로 보아도 문예적인 성취가 훌륭하였지만, 문학 적 성과에 단호 그룹이 평소 지향했던 고도, 고기, 우정 등의 가치를 담아 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들은 각각의 문체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준수 하면서도 그 관습을 일부 탈피하여 오찬의 정치적 지향과 청류지사로서의 면모를 부각하였다. 그리하여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정치적 지향도 함께 담아내는 문학적 투쟁을 계속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高步瀛, 『文章原流』, 역대문화속편, 상해: 봉황출판사.
金鍾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南公轍,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서사증, 『문체명변』, 오성사 영인본, 1984.
李明煥, 『海嶽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84.
李胤永, 『丹陵遺稿』, 한국문집총간 속집 82.
이인상, 『능호집』, 박희병 역, 돌베개, 2016.
李麟祥, 『凌壺集』, 한국문집총간 225.
莊獻世子, 『凌虛關漫稿』, 한국문집총간 251.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2. 단행본

-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개정증보판,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이종묵 편,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이종묵, 『한시마중』, 태학사, 2012.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3. 논문

- 강혜선, 『이인상(李麟祥) 그룹의 교유양상과 시서화(詩書畫) 활동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24집, 한국한시학회, 2016, 187~215면.
김민영, 『능호관 이인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윤조, 『뇌(詠)의 문체적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양상』, 『대동한문학』 제32집, 대동한문학회, 2010, 105~134면.
김정자, 『영조말 정조초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제44집, 조선시대사학회, 2008, 37~102면.
김종철, 『애제류의 갈래 성격과 글쓰기 특성』, 『동방한문학』 제48집, 동방한문학회, 2011, 209~228면.

- 박경남, 「단릉 이윤영 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혜숙, 「이인상의 관매기 연구」,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9~87면.
- _____,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419~449면.
- 백승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제51집, 한국한문학회, 2013, 301~328면.
- 유봉학, 「정조대 정치론의 추이」, 『경기사학』 제3집, 경기사학회, 1999, 57~87면.
- 이종묵,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567~592면.
-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동파수용 양상」, 『중국문학』 제6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193~218면.
- 정원표, 「자하 신위의 한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선혜, 「18세기 청류처사형 문인의 형성과 단릉 이윤영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현실』 제53집, 한국역사연구회, 2004, 45~73면.
- 최재남, 「한국 애도시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On the Death of O Chan and Literary Formation

Baek, Seung-ho

This thesis explores the literary form of the death of O Chan and the writings of the group of Danho who mourned him. O Chan criticized King Young-jo's tangpyeong policy. He exiled the distant area and died there. Yi Yunyeong, Yi In-sang, Yi Myunghwan, and Kim Jongsu wrote some texts of mourning for him, while they followed the general custom of the style, but at the same time, through this, they literally embodied O Chan as a Cheongryu, and in the process they filled the values of the ancient roads, old atmosphere, friendship that they usually aimed at. The death of O Chan was the death of Cheongryu branch.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roup was frustrated. They mourned the death of their comrades as a work of high literacy, and at the same time literally shaped their political orientation.

keywords: O Chan, Yi Yunyeong, Yi In-sang, Yi Myunghwan, Kim Jongsu,
Cheongryu(清流)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게재결정: 2018. 5. 10.

